

익산시 골목상권 살린다

'다리로움' 추석 깜짝 이벤트... 10월 4일까지 '페이백' 준대형마트·농협마트·대형병원 등 상위 10곳은 제외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익산 디어로움 페이백' 이벤트를 확대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맞아 깜짝 이벤트로 다음달 1일부터 10월 4일까지 34일 동안 '페이백'을 시행한다.

이 기간동안 '다리로움'을 사용(결제)한 금액 중 총 50만원 한도내에서 10%를 다시 '익산 디어로움 포인트'로 되돌려 주는 페이백을 시행하며, 페이백 지급 일정은 10월 20일경이다.

다만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준대형마트, 농협마트, 대형병원 중 지난 1월에서 7월까지 사용결액액 평균 상위 10곳은 '다리로움' 사용은

가능하지만 페이백 혜택은 제외된다.

페이백이 제외되는 업체는 마트데이(모현동), 엠마트(동산동), 엑스마트(부송동), 우리홈마트(부송동), 원광대학교병원, 익산농업협동조합 퍼커스마켓(어양동), 익산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모현동), 익산병원, 익산원예농협 로컬푸드직매장(영등동), 익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모현동) 등 10곳이다.

시는 페이백 제외업체 10곳을 시 홈페이지와 익산디어로움 앱 팝업창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페이백은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시행해 소비 진작과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큰 역할을 하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페이백 제도 재시행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부담이 커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반기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으로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이 같이 시행하게 됐다.

이밖에도 시는 '다리로움'을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지역경제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달부터 보유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 추가 적립 인센티브 구매 혜택을 제한한다. 이 경우에는 보유금액을 사용한 후에 '익산 디어로움'을 구매할 수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페이백 이벤트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시민이 행복한 지역화폐 정책을 펼치기 위해 항상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는 서수면 축동리에서 올해 첫 벼베기 수확을 실시했다.

군산시, 서수면 올해 첫 벼 수확 눈길

군산시에서 올해 첫 벼를 수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서수면 축동리에서 올해 첫 벼베기 수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첫 수확한 벼는 수량성과 품질이 우수한 조생종 조광벼로, 서수면 축동리 전업농 이준숙(58)씨가 지난 5월 8일 첫 모내기 실시한 후 110일 만의 수확을 거뒀다.

이씨는 군산에서 총 10필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

비(BAVD)가 오기 전 지난 28일 첫 수확을 실시했다.

신동우 먹거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일손부족과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깊은 시름이 느껴지는 한해였던 만큼 이번 첫 벼 수확이 제값을 받아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며 "풍임없는 소풍을 통해 농가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유스타팅 이영근 대표, 군산대에 발전기금 300만원 기부

군산대학교는 27일 대학 본부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유스타팅 이영근 대표로부터 발전기금 300만원을 전달받았다. 전달식에는 박병선 총장을 비롯해서 양현호 대외협력본부장 최강득 교수처장, 최광숙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했다. 이영근 대표는 올해 군산대학교 융합기술창업학과를 졸업했고, 재학 시에 스타트 기업인 유스타팅을 창업했다.

전달식에서 이영근 대표는 "재학 당시 학업과 유스타팅 창업에 있어서 학교와 학과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올 수 있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보답을 하고 싶었다"면서 "금액은 작지만 기부한 창업장학금을 통해 많은 후배 창업자들이 배출돼, 군산대학교가 명문 창업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대학교는 27일 대학 본부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유스타팅 이영근 대표로부터 발전기금 300만원을 전달받았다.

박병선 총장은 "융합기술창업학과 첫 졸업생으로서, 후배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고 이를 위한 마중물도 마련

해주는 매우 의미 깊은 기부를 해주어서 고맙다"며 감사를 표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 주택·건축 부서 취약아동 마스크 300장 후원

우수부서 포상금을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군산시 주택·건축 부서(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는 지난 해 전라북도에서 진행된 '2019년도 주택·건축분야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포상

금 중 일부를 취약아동을 위한 마스크 300매(KF 94)를 구입 기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입한 마스크는 8월 중 군산시 드림스타트를 통해 취약아동을 선별해 지급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지난 해 총 8개분야·22개 항목·38개지표에 대한 주택·건축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도시

및 농어촌 주택개량·빈집정비·재생사업, 지역건설활성화, 저소득층집수리사업 등 우수수범사례 및 공모사업 등 전 분야에서 모범적인 업무추진 및 시책 발굴에 앞장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취약계층의 투명·패적·안전한 주거문화조성을 위한 통합관리 및 주거안전지원사업 등 시민주거안정 분야의 특수시책 추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산=한영봉 기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 확대” 익산시, 서민부담 줄이기

다자녀 가정·취약계층 등 다양한 시민에 혜택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민들이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27일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하수도 사용료를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30㎡까지 감면량을 확대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유도한 방침이다.

또한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빗물 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3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 처리

시설로 유입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희망하는 가정은 시 상하수도사업단 홈페이지(<http://www.w.iksan.gov.kr/wate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과 ☎ 850-442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힘든 시기에 시민들이 제공되는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장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소식통

이동복지시설 정상 운영

코로나19 확산으로 익산지역의 각종 복지시설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이동복지시설은 정상 운영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휴원한 경우 맞벌이와 주말부부의 보육 부담이 증가하고 보육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어린이집과 센터에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해 줄 것을 권고하고 28일 직접 현장점검에 나섰다. 비상연락체계 구축, 감염건강관리 책임자 지정, 외부인 출입금지, 격리실 구비 및 접촉 최소화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마스크와 손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현황도 살폈다.

점검결과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 원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준수, 매일 2회 이상 발열체크와 수시소독, 외부인 출입금지,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 대응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아동들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방역 조치를 독려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빈집정비' 본격

익산시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27일 기존 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실시된 농촌 빈집정비사업 지원범위를 비주거용 빈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을 통해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그동안 사업 신청이 불가능했던 주택 부속동, 창고, 축사, 근린생활시설, 공동 작업장 등에도 철거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부속동, 창고, 축사, 근린생활 시설 등이며 일반건물(슬레이트가 미포함된 지붕)은 동당 250만원 이내, 슬레이트 건물(슬레이트가 포함된 지붕)은 동당 35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동일 대지 내 주택(빈집) 분체와 부속 등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